▪ 교회소식 ▪

1. **당회** : 교회의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당회가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2.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12:20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3.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 : 2016년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셨던 분은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6년 기부금영수증 신청자 중에 주소가 변경된 분, 2017년에 새롭게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실 분은 기부금영수증 신청서를 꼭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봉사** : 2018년 공영주차장 안내봉사는 올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부득이 봉사가 어려우신 분은 목회실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랑의 저금통** : 일전에 나누어 드린 사랑의 저금통을 성탄절까지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모은 동전은 선천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6. **신청** : 2018년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과 말씀묵상집 <헤른후트 기도서>를 로비에서 신청 받습니다. 가격은 권당 10,000원입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요 1: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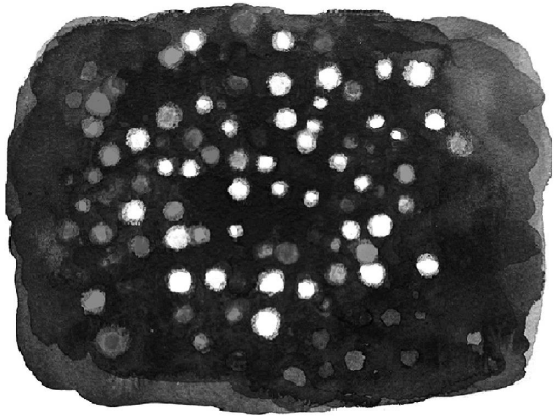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김재흥	김성우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12월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형운 추헌영 이동천 하미림 박진숙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박성실 윤영미 김향자 손미자 허명선 김인숙 장동훈 허호범		
다음주식당봉사	청파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안종일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10. 전능왕 오셔서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작은 촛불을 켜놓고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작은 불빛 앞에서 우리의 누추함과 초라함이 밝히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성서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말씀을 늘 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쁨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사랑과 은혜의 길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겔 34:16 ····· 인도자

▲ 교 독 문 ····· 116. 구주강림(2)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이형숙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99. 주님 앞에 떨며 서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렘 33:6-9 ····· I. 인도자
II. 박상규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 마중물찬양대
II. 빛을 들고 세상으로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곽정자 권미숙 김경혜 김광일 이부용 김미숙 김병대 김수경 김수진
김정길 최숙화 김종문 지명주 김종성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지해
김지현 김필순 김현주 김혜라 김혜진 남명진 김애정 문금석 문복순 민지회
박노수 남인자 박미연 박민아 박석원 양선용 박숙미 박옥순 박재영 이현정
박준희 이기분 박해숙 방문성 박혜경 방 민 방 준 백묘현 설규범 송정근
이소선 송태조 송형운 하미림 심해성 안현숙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이근식
신영신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우 배이화 이한림 김명희 임광호
임찬양 장동훈 정은선 장승희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정연희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정성식 조순덕 조호진 최승주 최미자 최 숙 최윤화 최은미 최 현
하현철 최성애 한봉섭 한상경 한상균 한상수 남해린 한상익 정영선 한성란
홍순구 안홍숙 홍춘숙

감사헌금

권미숙 김나름 김반야 김성수 이희숙 김인석 이선화 김재흥 최희영 김주희
김태정 문병욱 박창복 한성란 서원금 손숙경 연준호 오현우 유수진 이상도
이우엘 이자영 이현죽 임종수 정연경 정영례 최형서 한훈식 권채영
임창선(추모) 서효진(건강회복) 정구봉(건강회복) 유금주(결혼)

생일감사헌금 김창숙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종락 박영신 김향자 문복순 이진규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당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골무

- 강성희

빗방울 마당을 한 땀 한 땀 누빌 때
춥지야? 나를 꼬옥 끌어안던 어머니
엄지에 끼운 사랑이 이불처럼 따숩던

등잔불 아래서 기나긴 밤 기우시다
잠 들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던 어머니
세상이 따끔거려도 온 몸으로 막아주던

침묵의 주술로써 세상을 일구시다
침침해진 시력으로 헐렁해진 어머니
지금은 홑이불 속에 묻혀 있는 골무 하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 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둔 세상에 나아가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x2)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에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x2)
우리 맘 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둔 세상에 나아가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둔 세상에 나아가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x2) 빛을 비춰라 세상으로

말 씀 …… **회복의 약속**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 박준민 외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릇된 삶의 방향을 되돌리십시오. 탐욕과 불의에 물든 삶을 돌이켜 선과 정의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욕망에 이끌리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 목사

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는가?

1994년, <사회과학과 의식>에 역사적인 논문이 출판됩니다. 논문의 제목은 「역학과 원인의 그물망 :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이 독특한 제목의 논문을 출판한 이는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낸시 크리거 교수입니다.

이 논문에서 크리거 교수는 우리가 오늘날 질병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960년대부터 역학 교과서에 등장한 '원인의 그물망web of causation'은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제2형 당뇨병을 생각해보지요. 당뇨병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노화와 가족력은 물론이고, 고혈압과 과체중도 원인입니다. 여러 원인들이 서로 엉켜 함께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역학 연구들은 '원인의 그물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크리거 교수는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원인의 그물망'이 마치 처음부터 주어진 것인 양 생각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적 환경은 주어진 고정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인데도, 왜 질병의 원인을 항상 개인 차원의 고정된 요인으로만 가정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유전적 요소인 가족력조차도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데, 질병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개인 차원에서만 고려할 때 우리가 놓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지요. 어떤 이가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결핵에 걸리고, 또 다른 이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망처럼 얽힌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프다면, 그 그물망을 만든 거미는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그물망을 엮어낸 역사와 권력과 정치에 대해 물어야 하고, 좀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질병의 사회적, 정치적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고 크리거 교수는 말합니다.

…

크리거 교수의 논문 등을 계기로, 1990년대 후반 역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촉발됩니다. '역학 전쟁'이라고도 불렸던 그 논쟁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같은 공동체의 특성에서 찾는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개인의 나이와 가족력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특성은 모두 질병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건강 연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가 개인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고 그런 연구들로 인해 질병 위험의 개인화 경향은 점점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금연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시골 지역에서 AIDS로 사망한 여성도, 동유럽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던 나라에서 결핵에 걸린 어린이도, 개개인만을 바라본다면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이들을 아프게 했던 '원인의 원인'이 보입니다. 그 원인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장을 방치했던 일터가 금연율을 낮췄고, HIV 치료약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보험에 맡겨둔 지역사회가 AIDS 사망률을 높였고, 경제위기 속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투자를 줄이기로 한 국가의 결정이 결핵 사망률을 증가시켰습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지요. 건강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치·경제적인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요?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동아시아) 중에서